천재와 신앙인

(고전1:26~31)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재와 신앙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천재, 뭐 새삼스럽게 뜻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재주나 재능을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 다 천재이지요.
이 천재에 대해서 한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이 발명가 에디슨의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대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싶을 때 99%의 노력을 하게 되면 1%의 영감이 좌우하게 되는 비중은 적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성사되게끔 되기까지에는 필요한 100% 중에서 99%를 내 노력으로 채우다

보면, 결국은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작가 하마다 기조유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에디슨의 메모'라는 책에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1%의 재능밖에 없어도 99%의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 에디슨의 말을 해석하지만, 에디슨의 의도는 1%의 영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100%가 필요한데, 100% 중에서 99%를 차지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에디슨이 노력을 한다 그럴 때, 99%의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성사 시키는 능력은 1%의 영감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1%의 영감이 일을 성사시키는 데에 100%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99%의 노력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영감이 없으면 아예 일이 안 된다는 얘기를 에디슨이 한 거라 이겁니다.
천재에 대한 에디슨적인 정의에 들어 있는 뜻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오직 영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영감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99%의 노력을 하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습니까?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불을 밝히는데, 무려 5,000번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에디슨이 한 말이 유명해요.
5,000번째 실패를 한 뒤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5,000번째의 방법으로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럼 이 이야기를,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의 산물이 천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시키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나는 지금 5,000번째의 실패를 경험했다. 5,000번째까지도 나는 노력하며 도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기 위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5,000번째를 시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참으로 이 일본 하마다 기조유키라는 작가의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9%를 내가 노력하면 그 99%의 노력 때문에 일이 성공 되는 게 아니라, 99%를 노력하면 1%의 영감이 주어지는데, 그 영감에 의해서 일은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99%를 노력하고도 영감을 못 얻게 되면, 일은 성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에디슨이 말한 천재의 정의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영적인 감각, 영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 세상의 이 지구 위에서의 삶, 이 지구 위에서 주어지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영감이라는 것은 지구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성사 시키는 영감이라는 것은, 에디슨이 전문가가 아니고 에디슨이 정의 내린 천재가 전문가가 아니라, 신앙인이 전문가라는 얘기에요, 신앙인이.
신앙인은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구 위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지요, 그건 지혜자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지혜자.
내게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답을 찾아내는 거, 이 지구 위에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감으로 말하자면은 신앙인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감 받기에 전문가인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에디슨의 정의에 의하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의 산물인데,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이 영감과 노력의 구성비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구성비에서 참다운 신앙인의 삶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100%의 영감과 100%의 노력의 산물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앙인은 하늘을 향해서 100%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위해서는, 이 땅을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도 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만큼 내 모든 힘을 다 하늘을 향해서 쏟아 붓습니다.
100% 노력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 지구 위에서, 이 땅 위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땅과는 상관없이 하늘을 향해서 100%의 노력을 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은 내 노력은 0.01%도 들어가지 않고, 나의 지혜는 0.01%도 들어가지 않은, 100% 영감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100% 하늘을 향해 노력하고 100% 이 땅은 완전히 영감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 노력을 갖고 이 땅을 조금도 살지 않습니다.
1%도 이 땅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게 완벽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성비가 명확히 100%, 100%.
양쪽으로 100%에 달하면 달할수록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실현하셨고, 사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100% 하늘을 향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할 뿐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제에 속한 본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가짐에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망각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 태도가 교인들에게 있을 때 나타나는 게 교회 안의 분열이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문제의식을 느끼는 주체가 되어 버렸으니까,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니까 사람을 봐도, 목사님을 봐도, 교인들을 봐도, 권사 장로님을 봐도 문제의식을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분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분파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모두가 다 문제의식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 문제의식의 주체가 된 까닭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정답이요, 그 정답을 실행하는 능력이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답은 알아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하면 뭐에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답을 알아요.
그래도 실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실행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박약하든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동기가 부족하든지

하여간 능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답을 알아도 답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정답이고 그 정답을 수행할 능력이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100% 노력과 100% 영감으로 사는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이 땅을 영감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계속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25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석을 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100명의 노력이 합쳐진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100명의 이 땅 위에서의 천재들을 모아 놓은 결과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가장 강한 사람 100사람을 모아다 놓은 것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 건희 씨와 빌 게이츠와 무슨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이런 모든 전 세계 부자들을 다 모아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도, 아니면 전 세계의 대통령들을 다 모아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약하다는 얘기에요.
어떨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답과 능력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삶의 방식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인데, 그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나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답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고용하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문제의식의 주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 자리에 있을 때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의식의 주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실천적으로 우리 삶에서 한 번 되풀이해서 확인을 하자면 이런 얘기에요.
요셉의 경우를 한 번 보면, 요셉이 열일곱 살까지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살다가, 뭐 기껏해야 양이나 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떠돌이 집안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은, 그 집안일을 돌보는 노예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까지가 서른 살까지의 이력서에요.
이 이력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 어떤 학문적인 능력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정치적인 소양도 없고, 외교적인 능력도 없고, 경제학적 이론도 없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시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중동지역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서른 살까지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받고,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야 마땅한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마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비록 노예생활을 하고 있지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마지막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 나중에 만나고 고백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게 노력의 산물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데 있는 노력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라 일을 배운 적도 없고, 정치를 배운 적도 없고, 경제학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총리자리에서 수행되는 모든 일은 100%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의 말대로 뭐라 그러냐 하면 '꿈은 인간이 꾸지만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꿈에 대한 해석은 영감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그 해석대로 움직이면서 기근을 물리치고, 애굽과 인근 모든 나라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이고, 사도들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오순절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히 나사렛 출신 어부인 걸 알고 있는데, 배운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구약을 정통하고 있고, 영적인 문제를 꿰뚫고 있는 설교를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100% 영감에 의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이렇게 100% 영감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100% 하늘을 향한 노력입니다.
그 100% 하늘을 향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난 것은 스스로 문제의식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답을 찾아가겠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덜컥 주어집니다, 시련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내 마음이 떠나면서, 그 문제에 매여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은 100% 십자가를 붙잡는 데에 들어가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회수해서 하나님께 그 만큼 크기의 마음을 드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아버지께로 보내지게 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100%의 노력을 다 기울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100%의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옆에 김 사장을 보면 저 사람은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가고, 끊임없이 인맥을 넓혀 가는데, 나는 이렇게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느냐, 라는 염려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미천한 것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서 있는 자들, 세상에서 문벌이 좋은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 하심이라.
왕이 꾼 꿈을, 애굽의 모든 현자들이, 모든 지혜 자들이, 모든 박사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만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해석했을 때처럼.
그들이 감옥에 있던 요셉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보내지면 100% 하늘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100% 내 마음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천국만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100%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이 세상에 딱 나섰을 때에, 그 사람이 지식이 있건 없건, 돈이 없건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돈이 있는 이 건희 씨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의 학, 박사가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100% 영감에 의해 살아가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어진 약속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정답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수행되어 가기 때문에 100% 영감으로 살게 되고, 나는 뭐하면 되느냐?
100%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회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면 되는데, 그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얘기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답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할 때,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죽는 것이 첫 번째 정답이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정답이며, 그렇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문제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행복과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찼을 때 세상에 나가게 되면 100% 영감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의 삶은, 십자가 붙잡고 하늘을 향한 100%의 노력과, 그랬을 때에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100%의 영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정답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뿐인 것을. 그리하여 우리의 노력은 십자가를 붙잡는 데에 온통 다 쏟아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대해 죽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에 온통 다 쏟아지게 하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담기고 천국이 담길 때까지 기다리는 일에 온통 다 노력이 들여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은 온통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